



한국전쟁 중 미군이 폭파하는 한강 인도교(인동교). 왼쪽은 한강철교다



파괴된 한강 인도교 아래 임시다리를 건너는 피난민들



# 2017

정조대왕 등 행차 자연행사



# 2019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노들섬

# 한강대교

글 조보희 기자 · 사진 연합뉴스 DB

한강대교는 1917년 한강에 가장 먼저 생긴 인도교로, 첫 이름은 한강 인도교였습니다. 이곳은 조선 시대 정조가 수원 화성으로 행차할 때 배다리(舟橋)를 놓던 곳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 국군이 북한군 남하 저지를 위해 폭파하게 되고 전쟁 후인 1958년 완전히 복구돼 한강대교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1965년 제2한강교(현 양화대교), 1969년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가 들어서면서 한강교 다음에 연번을 붙인 이름으로 '한강대교'는 '제1한강교'가 됐습니다. 1982년엔 기존 왕복 4차선 외다리에서 왕복 8차선 쌍둥이 다리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강 교량이 늘어나면서 1984년 '한강대교'로 다시 이름을 바꿔 답니다. 다리 가운데 자리한 노들섬은 2019년 문화시설로 변신해 서울의 명물이 됐습니다. 이런 한강대교의 변화를 모아 봤습니다. ▼

# 1958

복구된 한강대교 개통식에 모인 시민들



국가기록원 제공



# 2020

한강대교와 노들섬

# 1950